

##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의 처리시간, 귀인, 및 회상\*

고재홍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개의 실험을 통해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정보들이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정보들에 비해 정보처리시간, 귀인의 방향, 및 회상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대인기억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예: Srull, 1981)에서 밝혀진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효과의 잠정적인 이유가 그 행동들의 원인추정 과정에서의 차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 1에서는 예상대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정보처리 시간(읽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더 잘 회상되었다. 그러나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회상율의 차이가 전적으로 정보처리 시간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는 정보처리량의 이외에 또다른 기제가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 효과에 개입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험 2에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의 귀인방향을 알아 본 결과, 전자의 경우는 특성보다는 상황으로 귀인되는 정도가 크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였다. 논의에서는 행동정보의 귀인방향, 회상, 및 표적 인물에 대한 인상판단간의 관계를 사회인지 영역에서의 일반적 모형으로 논의했다.

우리는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잠시동안의 관찰로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린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사람들은 매우 적은 정보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의 과거행동, 직업, 및 사회적 지위등에 관한 지식이나 옷차림과 같은 외모에 기초한 이러한 예상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기술하는데 사용된다(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만나면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비춰 처리하게 된다(Cantor & Mischel, 1977).

사회지각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초기의 정보는 이후의 정보에 비해 전체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Anderson, 1965; Asch, 1946), 고정

\* 이 연구는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뤄졌음.

관념이나 집단에 관한 인상은 그것과 불일치하는 정보들에 접하게 되도 잘 변화되지 않는다(Hamilton, 1979)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여러 연구자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예: Cantor & Mischel, 1977; Cohen, 1981; Hamilton, 1979). 그러나 최근의 대인기억연구들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오히려 회상이 더 잘 된다는 결과들이 많다(예: Hastie & Kumar, 1979; Srull, 1981, 1984).

인상(혹은 예상)에 불일치하는 정보가 인상에 일치하는 정보보다 회상이 더 잘된다는 대표적인 연구는 Hastie와 Kumar(197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표적인물, John,의 인상을 형성하라고 지시하고 표적인물의 성격을 몇개의 특성들(traits)로 일러 준 다음 그 인상에 일치하는 행동들과 불일치하는 행동들을 섞어서 제시했다. 잠시 후에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정보들에 대한 자유회상을 시킨 결과 초기 인상에 불일치하는 정보들이 일치하는 정보들보다 더 많이 회상되었다. 후에 Hastie(1980)는 이 결과를 토대로 대인기억의 연상적 저장-인출모형(the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을 세웠다. 이후에 Srull(1981)은 실험지시를 “인상을 형성하라”(인상형성지시)와 “정보들을 기억하라”(기억지시)로 구분하여 불일치정보의 회상이 일치정보의 회상에 비해 우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주어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려 시도할 때, 즉 인상형성조건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표적인물(혹은 표적집단)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혹은 집단)의 인상과 불일치하는 것일 때 지각자는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그 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집중과 정보처리시간이 필요하다(Bargh & Thein, 1985). 이와 같은 불일치정보의 처리에 드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이 정보들과 기억속에 있는 다른 정보들과의 연상적 연결(associative linkage)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어 이러한 연결이 없는 일치정보에 비해 불일치정보의 회상이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Srull, 1981; Srull, Lichtenstein, & Rothbart, 1985).

대인기억의 연상모형(Hastie, 1980)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회상에 관련된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우리가 정보들을 하나의 인상으로 능동적인 통합을 시도할 때 나타난다(Srull, 1981, 1984).

둘째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정보처리의 초기단계인 부호화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들간의 연상적 연결의 수와 관련되어 있다(Hastie, 1980; Sr-

ull, Lichtenstein, & Rothbart, 1985).

세째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불일치정보, 특히 평가적 불일치정보의 설명이유를 찾으려는 주의집중의 결과이다(Bargh & Thein, 1985; Crocker, Hannah, & Weber, 1983; Wyer & Gordon, 1984).

네째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과는 무관하게 그 정보들은 원래의 인상을 잘 변화시키지 않는다(Crocker et al., 1983; Hamilton, 1979).

이처럼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정보의 이해단계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노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인출과정보다는 부호과정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단계에서의 시간적 제약은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을 없애주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Bargh와 Thein(1985)은 실제로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정보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통로분석(path analysis) 결과를 들어 불일치정보의 회상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정보처리시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부호화과정(즉 정보 제시과정)에서 시간적 제약을 준 조건(과부하 조건)—즉 정보의 제시시간이 각 행동정보당 1.5 초로 빠른 조건—에서는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Srull(1985) 등은 피험자로 하여금 제시되는 정보들을 큰소리로 반복해서 따라 읽도록 하여 그들의 처리용량(processing capacity)을 제한했을 때는 불일치정보와 일치정보간의 회상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Stern, Marrs, Millar, 및 Cole(1984)도 불일치행동의 회상우월현상은 그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추가적(extra) 정보처리시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을 다룬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불일치 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인상형성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는 그 정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처리가 요구되고(예 : Bargh & Thein, 1985) 그 결과 정보들간의 연상적 연결이 많이 생기기 때문(예 : Srull, 1984)이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Bargh와 Thein(1985)의 연구절차를 본떠서,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정보가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정보에 비해 정보처리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지를 알아 보고(실험 1), Hastie(1980)의 모형에서는 '정보의 이해'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처리과정을 '귀인과정'으로 간주하여 정보유형에 따른 귀인결과와 회상율의 차이를 알아보려 한다(실험 2).

# 실 험 1

## 방법 및 절차

**피험자** 실험 1에 참석한 피험자들은 경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4명이었다.

**재료** 모든 피험자들에게 ‘김영수’라는 표적인물이 행한 것으로 소개된 16개의 행동기술문들을 14인치 CRT(cathode-ray tube) 모니터로 제시했다. 제시된 행동기술문들은 Sruell(1981)의 실험에서 사용했던 것을 차재호(1987)가 번안한 것이다. 이 행동기술문들은 총 3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2개는 ‘친절한’ 행동들이고, 12개는 ‘불친절한’ 행동들이며, 나머지 12개는 ‘무관한’ 행동들이다. 실험 1에서 각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행동기술문들중 8개는 실험자가 설정해 준 표적인물의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들이고, 4개는 표적인물의 인상과는 무관한 중립행동들이며, 그리고 4개는 표적인물의 인상과는 불일치하는 행동들이다. 즉 표적인물인 ‘김영수’를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이라고 알려주어 그에 대한 인상을 갖도록 한 친절지시조건에서는 친절한 행동들(예: “실직한 이웃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었다”)은 일치정보들이고, 불친절한 행동들(예: “아내와 돈문제로 다투다가 그녀를 때렸다”)은 불일치정보들이고, 그리고 무관한 행동들(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새옷을 한벌 샀다”)은 중립정보들이다. 표적인물인 ‘김영수’를 매우 불친절하고 비사교적이라고 알려 주어 그에 대한 인상을 갖게 한 불친절지시 조건에서는 친절한 행동들이 불일치정보들이고, 불친절한 행동들은 일치정보들이며, 그리고 무관한 행동들은 역시 중립정보들이다. 지시조건에 따라 제시된 유형별 행동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시조건과 제시된 유형별 행동수(개)

지시조건 \ 행동유형	친절행동	무관행동	불친절행동
친절지시	8	4	4
불친절지시	4	4	8

자극인 행동기술문은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실험프로그램은 거의 msec까지 정확히 시간을 측정하도록 기계어로 준비되었다. 컴퓨터(Apple-2)의 space bar를 누르면 “준비”라는 자막이 모니터에 2초동안 제시된다. 2초후 부터 행동기술문이 모니터의 중앙에 제시된다. 피험자가 space bar를 누를 때마다 다음 행동기술문이 역시 모니터의 중앙에 제시된다. 행동기술문이 제시된 순간 부터 space bar를 누를 때까지의 시

간이 자동적으로 msec 단위로 기록되어 저장되도록 하였다. 행동기술문의 선정과 제시 순서는 무선적으로 되도록 프로그램되었으며, 피험자들에게는 반응시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절차** 피험자들은 한명씩 실험에 참석하였으며 무선적으로 2개의 지시조건 (친절지시, 불친절지시) 중 한조건에 배정되었다. 먼저 피험자를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앉도록 한후 “이 실험은 사람들이 글로 쓰인 행동들을 보고 이 행동들을 행한 사람의 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다음 피험자가 이해했는지를 물어본 후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니터 중앙에는 ‘김영수’라는 사람이 행한 행동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행동들을 잘 읽으시고 그가 어떤 사람 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실험자가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컴퓨터의 space bar를 누르십시오(이때 space bar를 지적해 주었음). 그러면 모니터에 ‘준비’라는 자막이 나온 2초 후에 하나의 행동이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그 문장을 다 읽었으면 다시 space bar를 누르시면 다음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space bar를 누를 때마다 하나씩 모두 16개의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읽게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손을 space bar에 올려 놓으십시오.” 이때 실험자가 참고로 ‘김영수’라는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고 말하고, 한조건(친절지시조건)에서는 “그는 매우 친절하며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 주고 친구사귀기를 좋아하며 일반적으로 사교활동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려 주었고, 다른 한조건(불친절지시조건)에서는 “그는 매우 불친절하며 비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며 친구사귀기를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교활동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피험자들이 행동기술문을 다 읽은 다음 16절지를 나눠 주고 그위에 ‘김영수’에 대해 받은 인상을 20자 이내로 적도록 했다. 이것은 특정정보의 반복 암송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는 3분이 주어졌다. 그런 다음 용지 뒷면에 모니터에서 본 16개의 행동기술문들을 “가능한한 많이 그리고 정확히” 회상하여 적도록 지시했다. 회상과제에는 10분이 주어졌다. 이상으로 실험이 끝나고 피험자들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실험내용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도록 부탁했다.

**실험설계** 실험설계는 2×3 split plot 요인설계로서 지시(친절지시, 불친절지시)는 집단간 변인이었고 행동유형(친절행동, 무관행동, 불친절행동)은 피험자내에서 반복되는 변인이었다.

중속변인 실험 1의 중속변인은 피험자들이 행동기술문을 읽는 시간(reading time; 이하 RT라 함)과 행동기술문의 회상율이었다.

### 결과 및 논의

2가지 중속변인 모두에서 지시조건(친절지시, 불친절지시)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은 일치여부(일치정보, 중립정보, 불일치정보)에 대해서만 1원 변량분석으로 이뤄졌다.

읽는 시간(RT) 모니터에 제시된 행동기술문에 대한 RT의 전체 평균치는 4653.29 msec였다.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M + 3SD$ 와  $M - 3SD$ 를 구한 결과 1356.62 msec와 7955.30 msec였다. 이러한 근거로 행동기술문의 평균 RT가 1400 msec이하와 8000 msec이상인 2명의 피험자는 자료처리에서 제외했다. 일치여부에 따른 평균 RT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일치여부에 따른 평균 RT (괄호안은 표준편차)

일치정보	중립정보	불일치정보
4528.03*	4371.34	5068.50
(1043.36)	(1404.93)	(1296.87)

\* 수치는 msec.  $N = 32$

변량분석을 한 결과 일치여부에 따른 RT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62) = 7.67, p < .001$ . 이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일치정보( $M = 4528.03$ )와 중립정보( $M = 4371.34$ ) 간에는 RT의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F < 1.0$ ) 불일치정보( $M = 5068.50$ )는 일치정보와 중립정보에 비해 RT가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1,31) = 8.48, p < .001$ ;  $F(1,31) = 11.52, p < .001$ ]. 이는 인상과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불일치하는 정보들은 그 정보들을 하나의 인상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정보자체가 뜻밖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끌게 될 것이다(Wyer & Gordon, 1982)라는 제안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불일치정보는 일치정보에 비해 정보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의 처리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본실험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회상율 회상율은 피험자들의 회상내용중 옳은 회상의 정보수를 제시된 정보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일치여부에 따른 평균 회상율은 <표 3>에 나와 있다.

<표 3> 일치여부에 따른 평균회상율 (괄호안은 표준편차)

일치정보	중립정보	불일치정보
0.294*(0.157)	0.255(0.245)	0.450(0.264)

\* 수치는 옳은 회상정보수를 제시된 정보수로 나눈 비율임.  $N = 32$ .

조건별 회상율의 결과도 RT의 결과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량분석을 한 결과 일치여부에 따른 회상율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2,62) = 8.74$ ,  $p < .0001$ . 불일치정보의 회상율 ( $M = 0.450$ )은 일치정보 ( $M = 0.294$ )와 중립정보의 회상율 ( $M = 0.255$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다  $ps < .001$ . 일치정보와 중립정보의 회상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F < 1.0$ ).

이결과는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회상이 우월하다는 본실험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인기억에 관한 연구들에서 일치-불일치 정보의 회상량차이를 보고한 많은 연구들(예: Hastie & Kumar, 1979; Srull, 1981, 1984)의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비록 RT로 조작적으로 정의된 정보처리량의 평균치들과 회상율의 평균치들이 유사한 결과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결과들만으로는 정보처리량이 회상율 차이를 중재(mediate)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인과관계는 RT와 회상율을 각각 변량분석한 결과만으로 확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 피험자들의 RT와 회상율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았다. RT와 회상간의 전체 상관정도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 $r(94) = .313$ ,  $p < .01$ (일방검증)]. 특히 RT와 회상간의 상관계수가 일치정보의 경우에는  $r(30) = .174$ , 중립정보의 경우에는  $r(30) = .263$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불일치정보의 경우에는  $r(30) = .326$ 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 $p < .01$ , 일반검증). 불일치정보의 경우에만 RT와 회상율간의 상관이 높은 것은, 일치정보나 중립정보의 회상율보다는 불일치정보의 회상율이 RT로 조작적 정의된 정보처리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처리량이 회상율을 중재하는 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RT를 공변인(covariate)으로 하여 조건별 회상율의 차이를 알아보는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이다.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 회상율에서 RT의 효과가 유의했음 [ $F(1,92) = 7.20$ ,  $p < .01$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여부에 따른 회상율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 $F(2,92) = 4.49$ ,  $p < .02$ ]. 이 결과로 볼 때 RT로 조작적 정의된 정보처리량이 조건별 회상율의 차이에 상당히 기여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불일치정보의 회상율이 일치정보나 중립정보의 회상율보다 높은 이유가 전적으로 정보처리량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RT가 정보처리량을 측정해 주는 좋은 도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실험의 결과로 미뤄 볼 때 RT가 회상율의 조건별 차이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처리 시간이 늦게 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행동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일어난 상황을 추정하여 행동의 원인을 추리해야 한다. 대체로 예상과 불일치하는 행동의 원인은 상황을 추정하여 찾게 되고 예상과 일치하는 행동의 원인은 행위자의 특성에서 찾게 된다(Crocker, Hannah, & Weber,

1983). 상황은 실험적으로 주어진 행위자의 특성보다는 다양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어떤 상황을 추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 추정된 상황이 회상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정보처리시간의 효과가 배제되어도 조건별 회상율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Higgins와 King(1981)은 저장된 불일치정보는 주의를 끌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출시에 보다 특이하고 탐색이 용이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제안으로 볼 때 불일치정보는 일치정보에 비해 인출단서가 유용하거나 많다는 의미가 된다. Bargh와 Thein(1985)의 실험에서는 인출단서를 제공했을 때,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회상율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부호화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인출과정에서의 특이성 때문이라는 제안(Higgins & King, 1981)에 일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의 결과는 Hastie(1980)와 Srull(1981)의 주장처럼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회상이 잘되는 이유는 정보의 이해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들간의 연상적 연결(associative linkage)의 수나 강도가 아닐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실 험 2

실험 1에서는 예상대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예상과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정보처리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고 회상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변량분석 결과,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이 전적으로 정보처리량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다. 실험 2는 실험 1에서 나온 결과(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RT가 길게 나온 것)의 이유를 “귀인과정”으로 가정하고 정보유형에 따른 귀인방향의 차이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실험 1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최초의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정보는 분명한 원인(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귀인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정보는 행위자의 특성 내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적 요인에서 찾을 것이다. Smith와 Miller(1983)는, 피험자들에게 행동을 기술한 문장을 제시하여 여러 종류의 귀인질문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yes, no)시간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가장 빠름), 의도, 진짜 특질, 감정, 반복가능성, 가짜 특질, 행위자 귀인, 상황귀인(가장 느림)의 순서로 반응시간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상황귀인질문이 행위자 귀인질문보다 반응시간이 늦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Wyer와 Gordon(1982)은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일어난 조건들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p.133)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표적인물이나 집단의 인상에 불일치하는 행동정보를 접하게 되면 피험자들은 그 행동의 원인을 상황적인 압력이나 일시적인 요인에서 찾을 것이며, 인상에 일치하는 행동정보는 그 원인을 그 사람이나 집단의 특성에서 찾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Feldman-Summers & Kiesler, 1974). Crocker, Hannah, 및 Weber(1983, 실험 1, 2)는 불일치정보의 귀인방향을 상황적(situational) 원인에 의한 것, 혹은 소인적(dispositional) 원인에 의한 것으로 조작하여 행한 실험에서, 불일치행동이 소인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조작했을 때 그 정보는 기존의 인상에 영향을 주게되고 회상도 잘되며, 불일치행동이 상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조작했을 때는 그 정보는 기존의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상도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인기억연구에서는 Crocker 등의 연구와는 달리 일치정보나 불일치정보 모두에 대해 제시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제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에 1시간을 늦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급한 손님이 찾아 왔기 때문이다.”라는 정보 대신에 “그는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에 1시간을 늦었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므로 이전의 대인기억연구들에서 나타난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을 귀인과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자의 귀인조작이 아닌 피험자가 지각하는 불일치정보의 귀인결과를 알아 보아야 한다. Crocker 등(1983)에 따르면 행동정보의 기억에서 불일치행동에 대한 소인적 귀인이 이뤄질 때 일치행동보다 회상이 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인방향을 조작하지 않은 많은 대인기억연구에서 나타나는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효과가 그 정보들을 소인적 귀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제로 Crocker 등(1983)은 실험 3에서 귀인조작없이 피험자로 하여금 불일치행동(이 실험에서는 제시된 총 17개의 행동들 중에서 불일치행동이 1개였음)의 귀인방향을 평정하도록 한 결과 불일치정보는 일치정보에 비해 상황귀인이 높았다. 그들은 실험 3에서는 불일치정보의 회상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불일치정보의 귀인방향과 기존의 대인기억연구들에서 나타난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 효과간에 모순을 찾을 수 있다. 불일치행동은 주로 상황귀인이 이뤄진다는 사실과 상황으로 귀인된 불일치정보는 일치정보에 비해 그 정보의 회상이 우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Crocker 등의 실험에서 처럼 불일치정보에 상황적 원인을 첨가하여 제시하면 그 정보는 더 이상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인상과는 무관한 정보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실험 2에서는 불일치정보의 귀인은 소인(혹은 특성)보다는 상황으로 이뤄지고, 또한 불일치정보는 일치정보에 비해 회상이 우월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상황귀인은 행동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매우 구체적인 원인을 찾음으로서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들은 각각 다른 구체적인 원인들과 함께 연상되어 기억될 것이다. 그 결과 행동정보의 회상시에는 이러한 구체적 원인들이 각 행동정보의 인출단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불일치정보의 회상이 용이할 것이다. 반대로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들은 상황귀인보다는 특성귀인이 이뤄질 것이고(예를 들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 구체적인 원인없이 전체인상과 함께 일치정보들 모두가 연상되어 기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정보들을 회상할 때는 전체인상, 혹은 특성, 이 기억의 인출단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의 범주(즉 인출단서)에 연결된 세부정보들(혹은 exemplars)의 수가 많을 수록 개개정보의 인출확률은 줄어들기 때문에(Tulving & Pearlstone, 1966) 일치정보는 불일치정보보다 상대적으로 회상율이 낮게 될 것이다. 인상은 무관한 중립정보는 그 행동의 원인을 상황이나 특성중 어느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성이나 구체적인 상황적 원인이 인출단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회상율은 일치정보나 불일치정보에 비해 가장 낮을 것이다.

Hastie(1984)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상에 일치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귀인판단을 하지 않으나 예상과 불일치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인과적 추리(reasoning)하도록 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때보다 그 사상들의 회상이 우월함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불일치정보에 대한 주의집중이나 가외적인 정보처리시간의 소요등은 주로 인과적 추리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고 우리가 그 정보의 원인을 추정했을 때 비로서 그 정보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Srull(1981, 1984)이 주장하는대로 불일치정보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리시간도 더 걸리고 그동안 그 정보와 이전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들간의 비교과정에서 생기기게 되는 연상적 연결의 수 때문에 그 정보의 회상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귀인과정에서 찾은 불일치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원인이 그 정보의 인출단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험 2는 이상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예언 1**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정보들은 그 행동의 원인으로 특성보다는 상황을 높게 평정할 것이다. 그러나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정보들은 그 행동의 원인으로 상황보다는 특성을 높게 평정할 것이다.

**예언 2** 행동정보의 회상율은 불일치 정보, 일치정보, 그리고 중립정보의 순서로 나타날 것이다.

**피험자** 경남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30 명의 학생들이 실험 2에 참석했다. 모든 피험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심리학개론의 실험점수를 약속 받았고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석했다.

**재료** 모든 피험자들에게 ‘김영수’라는 표적인물이 행한 것으로 소개된 16개의 행동기술문들을 슬라이드로 제시했다. 실험 2에서 사용된 행동기술문들은 실험 1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의 행동기술문이 적혀 있고 슬라이드는 자동으로 7초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제시되도록 했다. 총 16개의 행동기술문중 8개는 실험자가 설정해 준 표적인물의 인상과 일치하는 행동들이고, 4개는 표적인물의 인상과는 무관한 중립행동들이며, 그리고 4개는 표적인물의 인상과 불일치하는 행동들이다(표1 참조).

정보의 제시순서는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마다 똑같이 일치정보 2개, 무관정보 1개, 불일치정보 1개로 구성하였으며 구획내에서 정보들은 무순으로 제시되었다. 행동들의 내용은 자극목록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각 피험자마다 다르게 하였다. 귀인평정은 2가지의 물음으로 측정되었다.<sup>1)</sup> 하나는 “이 행동이 어느 정도 그의 ‘특성’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이고 또다른 물음은 “이 행동이 어느 정도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이다. 두 물음 모두에서 피험자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3) -절대로 그럴 것(+3)의 7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귀인평정을 위한 물음의 순서는 사전에 통제되었다.

**실험설계** 실험설계는 2×3 split plot 요인설계로서 지시변인(친절지시, 불친절지시)는 집단간 변인이고 행동유형(친절행동, 무관행동, 불친절행동)은 집단내 변인이다.

**절차** 피험자들은 한명씩 실험에 참석했고 그들에게는 이 실험이 인상형성에 관한 실험이라고 말했다. 피험자들을 슬라이드 projector 앞에 앉게 한 후 16매가 묶인 귀인평정 용지를 나눠 주었다. 그런 다음 실험자가 실험지시를 했다. 실험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슬라이드 각장에는 ‘김영수’라는 남자가 행한 행동들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각 행동기술문들을 보면서 김영수의 각 행동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가 처한 상황때문에 나온 행동인지를 추정하여 각각을 지금 받으신 평정지위에 그 정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평정지 한장마다 똑같이 2개의 물음이 나와 있고 여러분은 하나의 행동기술문을 보면서 각장에 나와 있는 두 물음, 즉 특성때문의 정도와 상황때문의 정도에 모두 답하여야 합니다. 슬라이

註1) Miller, Smith, 및 Uleman(1981)은 상황적 귀인과 소인적 귀인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도 그들의 주장에 따라 귀인평정을 두 가지로 하였다.

드가 넘어가면 다음장의 평정지에 같은 방식으로 답하십시오. 각 슬라이드는 자동적으로 약 7초동안 제시되고 7초후에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7초안에 두 가지 물음에 모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지시에 덧붙여 한조건(친절지시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김영수는 매우 친절하며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며 친구사귀기를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사교활동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다른 한조건(불친절지시조건)에서는 “김영수는 매우 불친절하며 비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며 친구사귀기를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교활동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실험지시가 모두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미리 준비된 슬라이드 projector를 통해 모두 16개의 행동진술문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했다. 그런 다음 16절지를 나눠 주고 그위에 피험자가 느낀 ‘김영수’의 인상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도록 했다. 이 과제에는 3분이 주어졌고 이는 기억에서 나타나는 반복암송(rehearsal)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갑자기 피험자에게 슬라이드로 제시된 행동기술훈문들을 “가능한한 많이, 그리고 정확히” 회상하여 적되 순서는 무시하도록 하는 회상과제가 주어졌다. 회상과제에는 10분이 주어졌고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5-6분안에 회상과제를 마쳤다. 회상과제가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사후해명을 하고 실험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후 실험을 끝냈다.

## 결 과

실험 2에서는 귀인평정치와 정보의 회상율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실험설계는 지시(친절지시, 불친절지시)×행동유형(친절행동, 무관행동, 불친절행동)으로 된 split plot 요인설계였다. 여기서 지시변인은 피험자간 변인이고 행동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으로서 반복측정된 변인이다. 변량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인 귀인평정치와 회상율 모두에서 지시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에서는 정보의 일치여부(일치, 중립, 불일치)에 따른 귀인평정치와 회상율의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른 귀인평정치(특성, 상황)를 중다변인 변량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했다. 그런 다음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른 회상율을 분석했다.

**귀인평정치** 정보일치여부에 따라 제시된 정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귀인평정치는 평균평정치를 구한 다음 이를 원점수로 하여 자료처리 하였다. 정보일치 여부와 귀인유형에 따른 평균 평정치들은 <표 4>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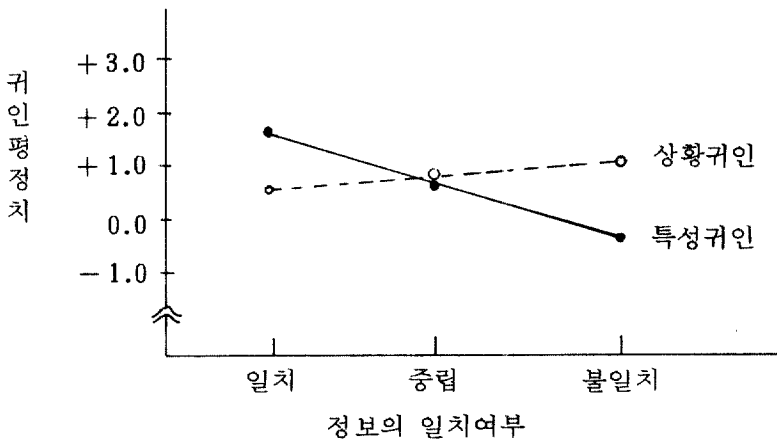
특성귀인 평정치와 상황귀인 평정치간의 상관정도는 일치정보의 경우  $r = -.38$ , 중립정보의 경우  $r = -.03$ , 불일치정보의 경우는  $r = -.03$ 으로 모두

〈표 4〉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른 평균 귀인평정치(괄호안은 표준편차)

귀인유형/일치여부	일치정보	중립정보	불일치정보
특성귀인	1.18*(0.97)	0.61(1.03)	-0.11(1.70)
상황귀인	0.58(0.90)	0.79(0.90)	0.84(1.78)

\* 수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3) -절대로 그럴 것 (+3) 상에서 피험자들이 제시된 행동의 원인을 특성(혹은 상황)에서 추정 한 값임.  
N = 30.

유의한 상관은 없었다. 귀인평정치를 MANOVA 한 결과 정보일치 여부와 귀인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Hotellings'  $T^2 = .319$ ,  $p < .02$ ; Wilks'  $\lambda = .758$ ,  $p < .02$ ).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F값은  $F(2,58) = 5.47$ ,  $p < .01$ 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른 귀인 평정치

이 결과를 다시 단순 주효과검증을 한 결과, 예상했던대로 일치정보의 경우에는 특성귀인의 정도 ( $M = 1.18$ )가 상황귀인의 정도 ( $M = 0.5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F(1,29) = 4.78$ ,  $p < .05$ ]. 중립정보에 대한 두 유형의 귀인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불일치정보의 경우에는 상황귀인의 정도 ( $M = 0.84$ )가 특성귀인의 정도 ( $M = -0.11$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F(1,29) = 6.38$ ,  $p < .02$ ]. 이 결과는 인상에 일치하는 정보는 상황귀인보다는 특성귀인이 이뤄질 것이고, 인상에 불일치하는 정보는 특성귀인보다는 상황귀인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언과 부합되는 것이다.

**행동정보의 회상** 피험자들이 회상한 행동정보는 원래 제시된 정보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옳은 회상으로 채점되었다.<sup>2)</sup> 피험자들의 회상에 대한 채점은 실험내용을 모르는 2명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였고 두 채점자들의 채점은 약 98%의 일치율을 보였다.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른 조건별 행동정보의 회상율을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여기서 사용된 회상율수치는 피험자들에게 회상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회상중 옳은 회상정보의 수를 제시된 정보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표 5>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른 회상율 (괄호안은 표준편차)

일치정보	중립정보	불일치정보
0.43*(0.19)	0.43(0.27)	0.59(0.27)

\* 수치는 옳은 회상정보수를 제시된 정보수로 나눈 것임.  
N = 30.

정보일치 여부에 따른 회상율을 변량분석한 결과, 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58) = 4.27, p < .02$ . 예상했던 것과 같이 피험자들은 불일치정보 ( $M = 0.59$ )를 일치정보 ( $M = 0.43$ )나 중립정보 ( $M = 0.43$ )보다 더 잘 회상했다 [각각  $F(1,29) = 8.83, p < .01$ ;  $F(1,29) = 4.21, p < .04$ ]. 이 결과는 예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예상과 일치하는 정보보다 회상이 더 잘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예: Hastie & Kumar, 1979; Srull, 1981, 1984)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과는 달리 일치정보 ( $M = 0.43$ )와 중립정보 ( $M = 0.43$ )의 회상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 $F < 1.0$ ).

## 논 의

실험 2에서는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회상이 우월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사회적 행동정보의 이해 과정에서 개입되는 귀인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이뤄졌다. 불일치정보는 특성귀인보다는 상황귀인정도가 클 것이고, 일치정보는 그 반대일 것이라는 가설은 실험에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Crocker 등(1983, 실험 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의 대인지역 연구에서 자주 출현한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이 본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는 총 16개의 행동정보들이 제시되었고 그중 불일치정보가 4개,

註 2) 통상 대인지역연구에서는 이처럼 관대한(lenient) 기준으로 회상내용을 채점하고 있다(예: Srull, 1981; Crocker et al., 1983). 또한 관대한 기준을 채택했을 때와 엄격한 채점기준을 채택했을 때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중립정보가 4개, 그리고 일치정보가 8개이었다. 일치정보의 수가 불일치정보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일치여부에 따른 정보수의 비대칭성은 본 실험에서도 나타난 불일치정보의 회상우월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일치정보에 비해 불일치정보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보들은 전경(*figure*)이 되고 반대로 일치정보는 배경(*ground*)이 되어 전경이 되는 정보들에 피험자들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더 많이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von-Restorff* 효과라 한다. 그러나 제시된 정보수가 불일치정보와 똑같이 4개인 중립정보의 회상율( $M = 0.43$ )은 일치정보의 회상율( $M = 0.43$ )보다 높지 않았다( $F < 1.0$ ). 이 결과는 단지 제시된 정보수의 차이 때문에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회상이 우월하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도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수적비율이 똑같을 때(*Srull et al.*, 1985) 뿐만 아니라 불일치정보의 수가 일치정보의 수보다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이러한 불일치 정보의 회상우월현상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Srull*, 1981, 1984).

그러나 정보유형에 따른 특성귀인 정도와 상황귀인 정도간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각각의 절대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귀인과 상황귀인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는 약간 다른 결과를 얻었다. 특성귀인의 평정치는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라 예상대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일치정보( $M = 1.18$ )는 중립정보( $M = 0.61$ )와 불일치정보( $M = -0.11$ )보다 특성귀인 정도를 높게 평정했다 [각각  $F(1,29) = 4.36, p < .05$ ;  $F(1,29) = 8.58, p < .01$ ]. 그러나 상황귀인의 평정치는 정보의 일치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 < 1.0$ ). 이에 대한 이유는 아직 확실히 알 길이 없다. 이것이 실험 2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를 요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실험 2에서 나타난 회상율의 차이가 상황귀인의 절대적 크기의 차이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렵다. 그러나 실험 2의 결과를 상황귀인 정도와 특성귀인 정도의 상대적 차이에 의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실험 2에서는 귀인의 방향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인의 정도와 회상율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 현재로서는 단지 귀인의 방향과 회상율이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점때문에 실험 2의 의의는 축소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귀인방향과 회상율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귀인방향의 조작이나 중다회귀분석 방법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귀인방향의 조작은 정보의 일치여부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다.

### 전 체 논 의

실험 1에서는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정보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정보처리시간의 차이가 정보의 회상율과 깊은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보였으나 정보유형에 따른 회상율의 차이를 전부 설명하지는 못했다. 실험 2에서는 피험자들이 행동정보를 접하게 될 때 일어난다고 가정한 귀인방향과 회상율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시도로 이뤄졌다. 예상대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는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특성귀인 정도와 상황귀인 정도간의 상대적 차이에 의한) 상황귀인 정도가 컸다. 또한 대인기억에 관련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상에 불일치하는 정보가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회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2에서는 귀인방향과 회상율간의 인과적 관계는 밝혀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들에서 보면, 일치정보에 비해 이해가 어렵고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행동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결과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원인이 그 정보의 회상시에 좋은 인출단서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은, 판단(judgment)과 기억(memory)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가능케 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판단은 기억속의 정보에 근거하여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인상(impression)과 기억(memory)간에는 독립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예: Anderson & Hurbert, 1963; Hastie & Park, 1986). 이러한 주장은 주로 두가지 실험적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상형성연구에서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가 나타나지만 정보의 기억에서는 최근효과(recency effect)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Anderson & Hurbert, 1963). 이 결과를 토대로 Anderson 등은 “인상을 기억하는 것과 성격형용사와 같은 언어적 재료의 기억과는 별개이다.”(p. 391)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다른 증거는 대인기억연구에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들이 인상과 일치하는 정보들보다 비율적으로 회상이 더 잘된다는 사실이다(Hastie & Park, 1986). 이런 증거들로서 Hastie와 Park(1986)은 기억속에 개개 정보들을 기억하는 bin과 그 정보들의 전체평균치로 구성된 인상을 저장하는 bin이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Fiske, Kenny, 및 Taylor(1982)는 인상판단은 적어도 귀인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고, 특정조건하에서는 기억된 정보에 기초한 자료주도적(data driven) 판단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Trope(1986)는 대인지각은 행동의 확인(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과 귀인추론(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두 구성요소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만약 위의 주장들처럼 행동정보의 기억이 각 정보의 원인들과 함께 처리되어 이뤄진다고 판단시에는 상황적 원인에 의한 행동들의 중요성이 절감(discount)된 상태로 판단이 이뤄진다면 기억과 판단의 독립성을 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에 비해 더 상황쪽으로 귀인되고, 그 결과로 회상이



우월하다는 사실은 이전의 대인기억에 관한 연구들(예: 고재홍, 1984; Srull, 1981)에서 인상형성지시조건이 기억지시조건에 비해 정보의 회상이 우월하게 나타났던 결과들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준다. 고재홍(1984)의 실험에서, 특히 정보량이 많은 조건에서, 인상형성을 하도록 지시한 조건이 정보를 기억하도록 지시한 조건에 비해 제시된 정보의 회상량이 많았다. Srull(1981)의 실험결과에서 인상형성조건이 기억조건에 비해 회상량이 많았고 그것은 주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의 회상량이 우월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이 결과들은 인상형성을 하도록 한 지시는 피험자로 하여금 행위자의 소인적 자질(qualities)을 평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Enzle & Schopflocher, 1978). 즉 귀인추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도록 한 기억조건에 비해 회상이 우월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Srull(1981, 1984)의 실험에서 처럼 불일치정보의 회상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불일치정보는 귀인추리에서 상황귀인이 이뤄지고 상황이 이후에 인출단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모형을 가능하게 한다. 한 최근 연구에서도 정보를 암기하도록 한 경우는 피험자들이 그 정보들의 반복암송(rehearsal)에 노력하기 때문에 대인지각의 주요과정중 하나인 추론과정, 즉 그 행동의 의미와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절감원리(discounting principle)와 증대원리(augmentation principle)를 사용하지 않음이 밝혀졌다(Gilbert, Pelham, & Krull, 1988).

## 참 고 문 헌

- 고재홍(1984). 정보량과 정보복잡성이 대인정보의 기억에 미치는 효과.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서울대학교).
- 차재호(1987). **사회심리학 실험실습**. 법문사, 서울.
- Anderson, N. H.(1965). Primary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using a generalized order effect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9.
- Anderson, N. H., & Hurbert, S.(1963). Effects of concomitant verbal recall on order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379-391.
- Asch, S. E.(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argh, J. A., & Thein, R. D.(1985).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person memory, and the recall-judgment link: The case of information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29-1146.

- Cantor, N., & Mischel, W.(1977). Traits as prototypes :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8-48.
- Cohen, C. E.(1981). Person categories and social perception : Testing some boundaries of the processing effects of prior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41-452.
- Crocker, J., Hannah, D. B., & Weber, R.(1983).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5-66.
- Enzle, M. E., & Schopflocher, D.(1978). Instigation of attribution processes by attributional ques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595-599.
- Feldman-Summers, S., & Kiesler, S. B.(1974). Those who are number two try harder : The effects of sex on explanations of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846-855.
- Fiske, S. T., Kenny, D. A., & Taylor, S. E.(1982). Structural models for the mediation of salience effects on attribu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105-127.
- Gilbert, D. T., Pelham, B. W., & Krull, D. S.(1988). On cognitive busyness : When person perceivers meets persons percei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33-740.
- Hamilton, D. L.(1979). A cogitive-attributional analysis of stereotyping.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2). New York : Academic Press.
- Hastie, R.(1980). Memory for information which conforms or contradicts a general impression. In R. Hastie et al.(Eds.), *Person memory : The cognitive base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J : Erlbaum.
- Hastie, R.(1984). Causes and effect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4-56.
- Hastie, R., & Kumar, P. A.(1979). Person memory :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5-38.
- Hastie, R., & Park, B.(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judgment depends on whether judg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8.
- Higgins, E. T., & King, G.(1981). Accessibility of social construct : Informa-

- tion processing consequences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ility. In N. Cantor & J. F. Kihlstrom(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pp. 69-121). Hillsdale, NJ : Erlbaum.
- Schneider, J. R., Hastorf, A. H., & Ellsworth, P. C.(1979). *Person perception*. Reading, Mass : Wesley.
- Smith, E. R., & Miller, F. D.(1983). Mediation among attributional inferences and comprehension processes:Initial findings and a general meth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492-505.
- Stern, L. D., Marrs, S., Millar, M. G., & Cole, E.(1984). Processing time and the recall of inconsistent and consistent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53-262.
- Srull, T. K.(1981). Person memory: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 440-463.
- Srull, T. K.(1984). Methodological techniques for the study of person memory and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2, pp. 1-72). Hillsdale, NJ : Erlbaum.
- Srull, T. K., Lichtenstein, M., & Rothbart, M.(1985).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processes in pers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316-345.
- Trope, Y.(1986). Identification and inferential processes in disposition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view*, 93, 239-257.
- Tulving, E., & Pearlstone, Z.(1966). Availability versus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n memory for word.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5, 381-391.
- Wyer, R. S., & Gordon, S. E.(1982). The recall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and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8, 128-164.
- Wyer, R. S., & Gordon, S. E.(1984).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ocial informa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2, pp. 73-150). Hillsdale, NJ : Erlbaum.

## ABSTRACT

### **Processing time, Attribution, and Recall of Inconsistent Behavioral Informations with a Target's General Impression**

**Ko, Jae-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 Nam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inconsistent and consistent behavioral informations with a target's general impression on processing time, attributional direction, and recall. Specifically, by means of two related experiments the hypotheses that the reason of superior recall effect of inconsistent informations that many experimental results(eg, Srull, 1981) have been shown is a causal reasoning process of those informations were tested.

In experiment 1, not only was the recall ratio of inconsistent informations greater than that of consistent informations, but the mean processing time(measured by reading time) of inconsistent informations was longer than that of consistent informations as would be expected.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f covariance in experiment 1, the difference of recall ratios between two types of informations could not explained by their processing time alone. This results suggests that besides the difference in processing time, some other mechanisms were involved in superior recall effect of inconsistent informations.

In experiment 2, the causal attributional directions of behavioral informations that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a target's general impression were examined. The former case was attributed to a situational cause rather than did a dispositional cause, the latter case was reversed. The relationships of attribution and recall of behavioral informations and impression of a target person were discussed in a general model of social cognitive domain.